문화광장

장 수 명
동화작가

따뜻한 밥 한 끼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얼마 전, 대정읍에 갔었다. 그때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줄지어 어르신 유모차를 끌며 한 곳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어르신들 모아 놓고 과장 광고된 물건 등을 판매하고 있다는 뉴스를 본 터라, 어머님 한 분을 따라가며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경로당에 곤밥 먹으로 가쥬 마씸."

나는 경로당 어르신들 주 5일 식사 정책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미뤄지고 있으며 각 지자체가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고심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던 생각이 나서 따라 들어가 보았다.

30명은 넘어 보이는 어르신들이 밥상 앞에 앉아있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고슬고슬한 밥, 구수한 배추 된장국. 아침도 거른 뱃속에서 갑자기 시장기가 확 올라왔다.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저도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주변머리 없기로 둘째가라면 서럽고, 모르는 사람과 밥 먹기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나인데, 어쩌자구, 나도 모르는 너스레가 툭 튀어나온 것인지…. 어릴 때 외할머니가 해 주시던 꿀맛 같은 밥을 먹었다. 밥을 먹고 경로당 회장님께 경로당 식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다.

"서귀포시는 대한노인회 한성율 지회장이 당장에 재정 지원은 없지만, 그래도 밥 하는 어르신들이 있으면 하루에 한 끼라도 거르지 않고 먹을 수 있을 테니, 급식 도우미부터 시작하자고 해서 경로당에서 밥을 하기 시작했지 마씸."

하지만 예산 지원은 없고, 지금 나오는 얼마 안 되는 보조금으로 언제까지 제공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기 그지없다는 경로당 회장님의 근심을 들으면서 마음이 몹시 무거웠다.

2026년 1월 31일 기준 서귀포시 인구 17만9232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만3847명으로 24.4%를 차지하고 있다. 높은 고령비율을 감안하면 하루 한 끼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는 물론이고, 영양 균형을 고려한 식사 제공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그런데 서귀포시 152개 경로당 가운데 주 5회도 아니고, 주 3회 한 끼를 제공하고 있는 경로당 수가 3분의 1에 못 미치는 40여 곳에 불과하다고 하니, 무엇보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다. 한 끼라도 영양 균형에 맞는 식사를 매일 한다면 노인 인구의 병원 진료비는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사업이 단기적으론 행정에 부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론 건강보험비 등을 아껴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업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서귀포시의 장기적인 노인 정책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 시급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하루속히 어르신들의 주 5회 식사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정부와 제주도에 주문한다.

사설

제주 오랜 숙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청신호

제주지역의 오랜 숙원인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주를 서울 진료권역에서 분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도민들의 수도권 병원 이용률이 높고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상급종합병원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주를 서울권역에 묶어 놨다. 이로 인해 도내 종합병원은 서울 대형병원과의 경쟁에서 밀려 상급종합병원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상급종합병원 부재로 도민들은 원정 진료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2024년 기준 도민 14만5054명이 수도권 대형병원을 방문했다. 원정 진료비로 2448억원을 지출했다. 항공료와 숙박비 등 부대경비를 포함하면 원정 진료에 소요된 연간 비용은 3000억원을 웃돈다. 그런데 복지부 산하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는 최근 회의에서 제주를 서울 진료권역에서 분리하기로 의결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구조적 걸림돌이 해소된 것이다. 진료권역 분리로 제주지역 병원끼리만 평가가 이뤄짐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가시화됐다. 진료권역을 분리하기 위한 고시 개정 절차 등을 거치면 제주에서는 내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개시된다.

제주는 그동안 불리한 조건에서 평가받아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탈락했다. 탈락의 좌절을 극복하고 전담팀을 꾸려 철저한 준비를 한 결과 서울 진료권역에서 분리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재명 대통령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제주 공약으로 약속했고, 당선 이후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면서 탄력을 받았다. 고진감래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제주도는 도내 종합병원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여전한 성별 임금격차 대책 마련해야

지난 8일 제118주년 세계 여성의 날에 마주한 제주사회의 현실은 '여전한 남녀 임금의 격차'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이라는 평가가 무색할 만큼, 임금과 고용 환경에서의 성별 격차는 여전했다. 문제 확인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등에 따르면 2024년 제주지역 남녀의 임금격차는 월 87만9000원에 달한다.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229만2000원으로, 남성(317만1000원)보다 27.7% 낮다. 성별 임금격차는 민간부문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주도가 공개한 성평등 임금 공시에서도 도내 17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여성 직원은 남성보다 22.2%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현실이 이렇다면 민간부문의 상황은 더 심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임금격차는 남녀 간 일자리 질의 차이부터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인사규정 등 여성의 생애주기 내내 차별이 쌓이면서 고착화된 것이다. 가사와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현실을 극복하지 않는 한 임금격차 해결도 어려워진다.

여성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회는 성장 잠재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것과 다름없다. 육아휴직과 돌봄휴가 사용이 여성의 몫이 되지 않도록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정책적 유인책이 요구된다.

세계 여성의 날이 기념일에 그치지 않고 성별에 따른 임금과 기회의 격차를 줄이는 전환점이 되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책임있는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만 공정한 제주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열린마당

'세계 물의 날'에 다시 묻는 제주의 물

강 창 훈
제주도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다가오는 3월 22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매일 수도꼭지를 틀면 맑은 물이 나오다 보니 우리는 물의 소중함을 쉽게 잊는다. 그러나 제주의 물은 결코 당연하게 얻어진 자원이 아니다.

지하수는 한 번 고갈되거나 오염되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 관리는 공급 확대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제는 얼마나 더 끌어올릴 것인가보다, 어떻게 절약하고 보전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수요 관리 중심의 물 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유수율 개선과 노후 관로 정비를 통해 정수된 물이 공급 과정에서 새어나가는 양을 줄이고 있다. 관망 감시 시스템을 활용해 누수를 조기에 발견하고 차단하는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불필요한 취수를 줄여 지하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다.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관리가 곧 수자원 보전으로 이어진다.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물 사용의 주체는 결국 도민이다. 세계 물의 날은 거창한 선언의 날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는 날이어야 한다.

양치 컵을 사용하는 일, 설거지할 때 물을 받아 쓰는 습관, 세탁물을 모아 한 번에 세탁하는 행동은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다. 이러한 실천이 모이면 제주 전체의 물 사용량도 달라질 수 있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국제 유가 급등 도민 피해 최소화"

오 지사, 정책공유회의서 당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9일 중동 사태발 에너지·물가 위기에 따른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서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주문.

오 지사는 9일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3월 월간 정책공유회의에서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 정세 불안을 진단하며, 국제 유가 급등으로 도민 가계와 경영비 부담을 급격히 끌어올릴 수 있다고 우려.

오 지사는 "안전건강실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난 5일부터 가동한 특별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실과 함께 도민 피해 최소화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에너지 대전환 등 도정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 이상민기자

제주시 성과관리 추진 주목

○…제주시가 시정 비전의 실질적 구현과 조직 내부의 공정한 평가 문화 정착을 위해 2026년 성과관리 및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 본격 시행에 나서며 주목.

시는 ▷시정 비전 담은 핵심과제 관리 ▷조직 규모 고려한 공정한 평가 체계 마련 ▷민생경제 활력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올해 성과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내부 경쟁 중심의 평가 관행을 깨고 시민이 체감하는 '실속형 성과' 창출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정의 내실을 기한다는 복안.

오동근 기획예산과장은 "행정 평가의 완성은 결국 시민의 체감에 있다"며 "체계적인 성과관리 운영을 통해 민생 중심의 시정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언급. 백금탁기자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 주 개 발
☎ 782-3644
010-4690-3636

묘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주토박이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작명☆택일☆
사주☆운세 상담
- 운명과 삶의 흐름을 명쾌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사주와 맞는 좋은 이름을 작명해 드립니다.
사주 명리학 수강생 모집
은퇴 없는 평생직장 역학상담사
1. 역학상담사 자격증반
2. 철학원 창업반(통변중심)
※ 개인교습으로 수시모집
☎ 연락처
동방철학원
064)759-4585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도지부장 문학림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 가 대 행
벌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 화장·무연고 전문
개장신고서 무료 작성 대행
장례지도사 강 봉 호
(진주강씨 제주도종회 이사)
010-5254-6661
『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
하 나 장 의 사
616-08-85402